# 하나님께 안갚음, 사람에게 앙갚음

## (시편 62:1~12)

5.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 셀라 )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안갚음, 사람에게 앙갚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께 안갚음, 사람에게 앙갚음'
제목의 의미를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안갚음하면 사람에게 앙갚음할 일이 없고, 세상에 안갚음하면 온통 앙갚음할 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와 같습니다.
'안갚음'이라는 말을 '안 갚음'이라고 쓰면 갚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갚음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순수 우리말로서 마음을 뜻합니다. 여기서의 안은 안쪽, 즉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마음으로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연관되어 반포지효(反哺之孝)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를 뜻합니다. 즉 '마음으로 돌려드린다'라는 뜻의 반포지효의 순수 우리말이 안갚음입니다.
이 안갚음을 하나님께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선민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마음을 되돌려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갚음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안갚음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피난처'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자 함이 아니

라 성경이 계속해서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토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파크'라고 하는데 '쏟다, 쏟아 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재난으로 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재지변입니다. 지진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피난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어떤 일이나 사건에 마음을 빼앗겨서 골똘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지진과 같은 재난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붓고 하나님께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붓고 피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안갚음입니다.

그런데 안갚음을 하면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안갚음을 하는 동안에는 이 세상 그 누구에 대해서도 앙갚음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앙심(怏心)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첫 번째 방해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신 후에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로서 우리 몸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몸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오늘 제목으로 해석해보자면 '앙심을 품거나 앙갚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앞서 샤파크가 '쏟아 붓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붓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 마음을 쏟는다면 반드시 앙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앙갚음의 심정이 생기고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에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마음의 앙심을 품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앙심의 마개가 생기면 하나님 뜻이 흘러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앙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안갚음을 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쏟아 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을 통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보았던 61편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역이 배경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이러한 배경을 추측케 하는 근거도 없고 또한 반박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만 압살롬 사건을 배경으로 보았을 때에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복음성가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1~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라는 문장을 직역해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나이다’라는 뜻입니다. ‘바람이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 원리가 등장합니다.
3~4절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적들이 담을 허물듯이 다윗의 존재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울타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다윗의 존재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고, 다윗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잠잠하다,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벌어지는 삶의 형편에 대해 잠잠하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을 향할 수 없습니다. 변증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면 이 세상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때에 속은 시끄러워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당장 해보시면 쉽습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돈이나 직장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이왕 이렇게 세상을 생각한 김에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보는 중이라면 지금 세상 문제에 대해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동안에는 속으로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를 때에는 얼마든지 세상을 향하고 생각하므로 속이 시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면 속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움직이시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서 ‘나의 구원이시요’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혼의 개념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육체를 가지고 있던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 채움이 육체를 통해 만나는 이 세상 것들로 가능하다고 믿고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육체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면 육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면 마음은 영이 됩니다. 영이 된 마음의 구원은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채운 내용의 속성이 영원할 때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돈으로 채운다 해도 돈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죽으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으로 채우려 해도 성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마음이 기뻤겠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영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운 마음은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재물로 마음을 채우고자 하지만 그 재물들은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아닙니다.
1절에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한 것은 이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우실 수 있고, 내 마음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 벌이고 있는 악행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그 악행 도모함을 밝히면서 이들이 지금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음을 다윗은 지적합니다. 다윗은 마음 채움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것을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처럼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을 때에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안갚음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려드릴 때에 대적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드려야 하는 이유는 2절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대로입니다.
대적들이 허물고 싶어 하는 다윗의 사회적 기반과 지위는 실제로 다윗의 존재 기반이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허물려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내용물이 아니고 다윗이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 기반이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다윗의 지위였습니다. 그럼으로 어떤 대적이나 원수도 그것을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음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온갖 악행을 감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앙심이나 앙갚음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고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 대적들의 악행으로는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만족과 기쁨의 기반인 하나님을 흔들 수 없는 한 다윗이 손해 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다윗에게 손해를 끼치겠다며 세상적인 기반을 흔들고 지위를 박탈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그러한 행동은 무척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의 흐름이 끊임없이 흐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뜻의 흐름이 다윗을 통해 나타날 때에 대적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심판도 대처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하지 못하고 대적들에 대해 쉽게 앙심을 갖습니다. 앙갚음의 원인이 되는 원한을 품게 된다면 당장 하나님의 뜻은 막힙니다.

원수들에 대해 앙심이 생기는 이유는 그들이 흔드는 나의 사회적 기반이나 지위나 재물들을 구원의 내용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그런 것에 쏟고 있을 때에 반드시 원망으로 시작된 앙심은 생겨납니다. 내게 그러한 마음이 생겨났음을 느낀다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 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 마음을 쏟게 된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1절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는 구절이 반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곧 마음 채움입니다. 이 마음 채움을 위해 대상을 선택할 때에는 믿음이 작용합니다. 그 대상을 가지면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고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이 믿음의 대상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만족과 기쁨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돈을 버는데 인생을 바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위한 대상을 선택합니다.
'소망'은 가지기 전에 미리 기뻐하는 것입니다. 돈을 소망하는 사람은 5년 뒤에 10억 벌 것을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지금은 10억이 없지만 그것을 벌었을 때의 기쁨을 상상하며 5년을 견뎌냅니다. 그러나 소망은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돈 건강 성공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망이라는 말에 대해 무지한 결과입니다.
믿음 소망에 대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소망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날 날을 믿음 안에서 미리 기뻐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결정하는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안갚음하는 것입니다. 샤파크 원어대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붓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 붓는다'라는 것은 지금 믿음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가질 수 있다면 믿음이라는 말은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직접 보고 가질 수 있다면 기뻐하지 않을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건강도 나쁩니다. 자식을 봐도 한심합니다.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앞으로 이룰 세상일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미리 기뻐해야 하는 신앙인이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지는 이들의 특성을 성경은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산 아래에 품었던 모든 이 세상의 소망을 망각했습니다. 세상이 모든 의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틀림없이 갖게 된다는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유일한 만족으로 여기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다 이루어졌을 때를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의 기쁨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붓는 것이고 안갚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으로 여겼고 하나님을 미리 기뻐하는 소망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해치기 위해 대적들은 그 사회적 기반이나 지위를 무너뜨리고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빼앗으려 하는 것들은 다윗에게는 전혀 구원과 기쁨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행동을 헛된 짓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9~10절을 보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구원을 위하여 세상 것으로 마음 채움을 시도합니다. 이것이 대개 사람들의 인생이지만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것을 빼앗겠다고 달려드는 대적들도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행까지 저질러가며 얻은 것들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본다 하여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에 부피가 거의 1800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안개 같은 수증기를 모아봤자 한 컵 물도 나오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물방울로 만든다면 한 방울이나 나오겠습니까? 내가 평생 마음을 들여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살지만 그 노력을 다 합쳐봐야 물 한 방울의 무게만큼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물로서 여기며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을 해치고자 하는 이들이 와서 하는 짓이라고는 전혀 보물이 아닌 것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11~1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권능과 인자함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발버둥 치며 다윗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사회적 기반과 지위 신분 등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은 다윗은 그들에게 앙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원해서 능력을 발휘하여 끌어들이고 움켜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그것들조차 붙잡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왕이란 지위가 주어지고 전쟁에서 승리가 주어진 이유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으려 하는 대적들의 시도는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허망한 행동을 하는 자들에 대해 다윗은 조금의 앙심도 품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앙갚음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다윗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흐를 수 있었고 결국은 어떤 대적도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앙심을 갖지 않고 대적들에게 앙갚음 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안갚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계기로 삼아 하나님께 마음 쏟음을 더욱 더 강렬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안갚음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채워짐은 하나님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미리 기뻐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안갚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에게 세상의 누가 손해를 끼치므로 나로 하여금 앙심을 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안갚음하는 자는 사람에게 앙갚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죽고 하나님께 온통 쏟아 붓는 안갚음을 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는 앙갚음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